



15일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파72·6691야드)에서 열린 메트라이프·한국경제 K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세영(20·미래에셋)이 우승트로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영 2주연속 뒤집기 '달콤한 입맞춤'

KLPGA 챔피언십 우승... 생애 첫 '메이저 킴'
시즌 3승 모두 역전 드라마... 상금 6억2827만원 1위

‘역전의 여왕’ 김세영(20·미래에셋)의 돌풍이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에서도 불어났다. 김세영은 15일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파72·6691야드)에서 열린 메트라이프·한국경제 KPGA 챔피언십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후반에 맹타를 휘둘러 2연타과 70타를 쳤다. 공동 선두보다 2타 뒤진 공동 3위에서 출발한 김세영은 합계 9연타과 279타를 적어

내 챔피언십의 전인지(19·하이트진로)와 안송이(23·KB금융그룹)를 1타차로 따돌리고 시즌 세 번째이자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세영은 이번 시즌 지난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마지막 홀 이글, 지난주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17번홀(파3) 홀인원을 기록하며 역전 우승의 드라마를 썼다. KPGA 챔피언십에서도 무서운 뒷심을 발휘한 김세영은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받아 상금 랭킹 1위(6억2827만원) 자리를 굳게 지켰다. 또 다승 부문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3승을 거둔 선수가 됐다. 김세영은 전반에 더블보기와 버디 1개를 적어내며 1타를 잃어 우승권에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11번홀(파5)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역전 우승의 시동을 건 김세영은 14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30cm에 붙여 다시 버디를 잡아 이때까지 단독 선두였던 안송이를 1타차로 추격했다. 안송이는 12번홀(파3)과 14번홀의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어프로치샷과 퍼트와 파세이브에 성공했지만 15번홀(파3)의 위기는 벗어나지 못했다. 안송이는 티샷을 그린 오른쪽 벙커에 넣

었고 두 번째 샷이 홀 3m 지점에 떨어졌지만 퍼트를 성공하지 못해 1타를 잃었다. 이때 16번홀(파4)에 있던 김세영은 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1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안송이가 16번홀에서도 보기를 적어내 우승에서 멀어졌지만 전인지가 먼저 경기를 끝낸 김세영을 끝까지 압박했다. 공동 선두로 출발했지만 4라운드 중반 공동 3위까지 밀렸던 전인지는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먼저 경기를 끝낸 김세영을 1타차로 추격했다. 전인지는 18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으로 홀 2.5m에 떨어뜨려 동타를 노렸지만 버디 퍼트를 홀 앞에서 미리 꺾어 공동 2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초반 징크스 깨고, 천적타자 현미경 분석?

류현진 애리조나 상대 내일 복수전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7일 오전 10시 4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채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방문경기에 등판해 설욕에 나선다.



12일 홈인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3점을 쫓 패전투수가 된 류현진은 닷새 만에 마운드에 올라 빛을 갈을 태세다. 당초 6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류현진은 18일 등판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왼쪽 사타구니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왼손 투수 크리스 카푸아노가 선발이 아닌 불펜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여 류현진의 등판 일이 하루 앞당겨졌다. 맞대결할 투수는 6승 10패, 평균자책점 4.22를 올린 우완 트레버 케이힐이다. 류현진의 이번 등판은 포스트시즌 3선발 논란을 잠재울 중요한 기회다. 류현진은 “가을 잔치에서 3선발이든, 4선발이든 중요하지 않고 팀에 보탬이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이지만 미국 현지 언론은 상징성이 큰 포스트시즌 3선발을 놓고 류현진과 우완 리키 놀라스코가 벌이는 경쟁 구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8월 이후 7연승을 구가하던 놀라스코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초반 난타를 당해 1.1이닝 동안 7점(5자책점)을 주고

무너지면서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3선발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한 류현진이 이번 애리조나 원정에서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의 신임을 되찾는다면 3선발 논란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다. 애리조나를 상대로 올 시즌 벌써 5번째 등판하는 류현진은 1승 1패, 평균자책점 5.48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와의 4번의 경기에서 34안타나 얻어맞아 피안타를 무려 0.362까지 치솟았다. 시즌 피안타율(0.257)보다 1할 이상 높다. 유난히 도드라진 초반·천적 징크스 극복 여부에 시즌 14승 달성이 달렸다. 류현진은 1회 투구수 1~15개 사이 홈런 8개, 안타 49개를 맞았다. 시즌 전체 피홈런(13개)의 대부분을 경기 초반인 1~2회에 허용한 셈이다. 미국 언론이 류현진의 포스트시즌 3선발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초반 실점이다. 큰 경기에서 초반에 투수가 실점하면 팀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볼 배합 패턴을 잘 아는 애리조나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리고 스윙을 하는 만큼 류현진도 ‘현미경 연구’로 이번 등판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폴 골드슈미트(11타수 6안타), A.J. 폴록(11타수 5안타), 애런 힐(5타수 4안타), 마틴 프라도(10타수 3안타) 등 천적 타자들을 어떻게 묶느냐가 반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추신수 20-20-100-100 대기록 눈앞

〈홈런〉 〈도루〉 〈득점〉 〈볼넷〉

도루 3·볼넷 1개 추가하면 NL 1번 타자로 사상 처음

뛰어난 장타력과 선구안, 주루 능력을 동시에 뽐내는 추신수가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NL)의 리그오프 중에서 누구도 달성한 적이 없는 대기록을 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홈런 1개를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 3득점 1볼넷의 불발방이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이날 경기에서 시즌 21호 홈런을 터뜨렸고, 시즌 100득점을 고지에 올랐다. 이날 끝난 볼넷은 시즌 99번째였다. 이날 경기까지 21홈런, 17도루, 100득점, 99볼넷을 쌓은 추신수가 도루 3개, 볼넷 1개를 보태 20-20-100-100(홈런-도루-득점-볼넷) 기록을 달성하면 NL의 1번 타자로 사상 처음으로 이 고지를 밟는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그레이디 사이즈모어(2007년·클리블랜드), 리키 헨더슨(1993년·토론토)이 1번 타자로 한 차례씩 달성했으나 NL에서는 1901년 이후 100년 넘는 기간에 아직 이 기록이 전이미답으로 남아 있다. 수준급 이상의 장타력과 선구안, 주루 능력을 모두 갖춘 타자들만이 이 기록을 쓸 수 있다. 양대 리그를 합쳐도 이 기록이 나온 것은 1901년 이후 113년 동안 25차례에 불과하다.



추신수가 올 시즌에 이 기록을 달성하면 2007년 그레이디 사이즈모어(클리블랜드) 이후 6년 만에 고지를 밟게 된다. 사이즈모어는 2007년 당시 클리블랜드의 테이블 세터로 활약하면서 24홈런-33도루-118득점-101볼넷의 기록을 썼다.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가 6차례(1992~1993, 1995~1998) 달성했고, 필라델피아 소속이던 바비 어브레이유도 6차례(1999~2002, 2004~2005) 20-20-100-100 고지를 밟았다. 1970년대 신시내티에서 활약한 조 모건이 4차례, 1990년대 후반 제프 백웰이 3번 이 기록을 썼다. 한 선수가 여러 번 이 기록을 달성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20-20-100-100 고지를 밟은 선수는 총 10명뿐이다. 올 시즌 추신수의 막강한 경쟁자는 마이크 트라웃(LA에인절스)이다. 23홈런 32도루, 102득점, 97볼넷을 기록 중인 트라웃은 올 시즌 이 기록에 가장 근접했다. 추신수가 이 기록을 달성한다면 내년 자유계약(FA)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타격하는 데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 선수가 여러 번 이 기록을 달성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에서 20-20-100-100 고지를 밟은 선수는 총 10명뿐이다. 올 시즌 추신수의 막강한 경쟁자는 마이크 트라웃(LA에인절스)이다. 23홈런 32도루, 102득점, 97볼넷을 기록 중인 트라웃은 올 시즌 이 기록에 가장 근접했다. 추신수가 이 기록을 달성한다면 내년 자유계약(FA)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타격하는 데 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군산상고 17년만에 봉황대기 품다

전국고교야구 미산고 꺾고 우승

군산상고가 제41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군산상고는 15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끝난 결승에서 마산고를 20-4로 대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군산상고는 1999년 황금사자기 우승 후 14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추배를 들었다. 마산고는 올해 황금사자기에 이어 봉황대기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다. 군산상고는 마산고의 실책에 편승해 타자

일순하며 1회에만 8점을 뽑아 승부를 갈랐다. 기세가 오른 마산상고는 21안타를 몰아쳐 마산고의 마운드를 두들긴 끝에 낙승을 거뒀다. 5이닝 동안 3점을 쫓으나 화끈한 타선 지원 덕분에 승리를 안은 조현병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올해 고교야구는 10월 3일 막을 올리는 제1회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협회장기 대회는 대한야구협회와 고교 야구의 발전을 위해 새로 만든 대회로 30개 팀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무너진 마운드 '아홉수의 벽'은 넘는다

KIA의 4강 도전은 끝났지만 아직 끝나는 개인 도전이 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마운드, 그나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10승을 향한 도전이 남았다. 아직 KIA에는 10승을 찍은 투수가 없다. 양현종이 전반기 승승장구하며 다승 1위를 지키기도 했지만 옆구리 부상으로 두 차례 자리를 비우면서 9승에 머물렀다. 소사는 지난 7·8월 8번의 등판에서 승 없이 4패만 기록하면서 9승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김진우도 후반기 중요한 길목마다 무너지면서 10승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다. 에이스 윤석민은 팀 사정으로 마무리로 돌아서면서 승(3)보다는 세이브(6)가 더 많다. 16일부터 시작되는 죽음의 7연전, '아홉수'에 빠진 투수들이 10승을 위한 도전에

김진우·소사·양현종 부상·부진속 10승 길목서 주춤

간절한 1승 향한 출격... 추석연휴까지 험난한 7연전

나선다. KIA는 16·17일 한화 원정에 이어 18일 사직을 돌아 19·20일 안방에서 넥센과 경기를 갖는다. 그리고 21·22일에는 잠실에서 투산을 상대한다. 추석 연휴까지 긴 힙백을 들어 올린다. 소사가 10승 선착을 위해 가장 먼저 출격을 한다. 16일 선발로 예정된 소사에게 이번 한화전은 설욕전이기도 하다. 소사는 지난 8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3회 전현태에게 투런포를 허용하는 등 6회까지 4실점을 했지만 상대의 실책 행진으로 6-4로 앞선 7회 최함

남과 교체되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윤석민의 시즌 첫 불륜 세이브와 함께 눈앞에서 10승을 놓쳤다. 앞선 경기에서 승을 쟁기지는 못했지만 소사는 올 시즌 한화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4차례 등판에서 3.12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챙겼다. 김진우에게도 간절한 1승이 남아있다. 김진우는 지난 4일 넥센전 8이닝 무실점의 호투 이후 4경기에서 내리 패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내용도 김진우 답지 못했다. 투산전에서 2.2이닝 동안 7실점을 하는 등 4연패 기간 평균자책점은 10.7까지 치솟

는다. 어깨 염좌로 한 차례 엔트리에서 빠졌던 김진우는 컨디션 난조로 앞선 로테이션도 걸렸다. 김진우는 명예회복을 노리며 주말 투산과의 경기에 출격할 예정이다. 부상으로 남은 후반기 일정이 불투명했던 양현종의 복귀도 가시화됐다. 양현종은 지난 8월13일 옆구리 근육 파열로 재활군에 내려갔다. 6월에 이어 두 번째 찾아온 부상은 만큼 시즌 아웃 전망도 나왔지만 14일 NC와의 퓨처스 리그에 등판하면 양현종의 피칭이 재개됐다. 50~60개의 투구수를 목표로 등판했던 양현종은 3.1이닝을 소화하면서 복귀를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 특별한 통증이 없는 만큼 10승을 위한 도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